

12/29/19

설교 제목: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첫 증인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15 장 42 절 - 16 장 9 절

(막 15:42)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막 15:43)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 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막 15:44)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막 15:45) 백부장에게 알아 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막 15:46)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으매 **절관주** 사 53:9

(막 15:47)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살아나시다(마 28:1-10; 눅 24:1-12; 요 20:1-18)

(막 16:1)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막 16:2)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절관주** 마 28:1, 요 20:1

(막 16:3)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절관주** 마 27:66, 요 11:38, 요 11:39

(막 16:4)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절관주** 마 27:60

(막 16:5)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절관주** 눅 24:4, 요 20:12

(막 16:6)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막 16:7)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절관주** 요 20:6

(막 16:8)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절관주** 마 28:8, 눅 24:9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다(마 28:9-10; 요 20:11-18)

(막 16:9)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절관주** 눅 8:2

여러분은 동서고금을 통털어 인간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에 대한 도전과 극복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염원하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해 왔으며
지금도 그 수고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여지껏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천하를 손아귀에 쥐고 흔들었던 진시황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 불로초를 구하려 애를
썼건만 결국은 구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았던 인간 가운데 가장 부유했고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하며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천만에요!

그것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종말이 오면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깨달아 영원히 사는 사람들의 부류에 합류하고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선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선택의 기간을 인간이 세상에 사는 동안으로 한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을 선택한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가 달린 십자가에 함께 못 받혀 죽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믿는 우리들에게 큰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본보기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안식일 전날 제 구시 (오후 3 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여 받아 왔습니다.

(막 15:42)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막 15:43)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 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막 15:44)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막 15:45) 백부장에게 알아 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는데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은 지금의 국회의원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이때야 말로 자신이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음 날은 안식일이라 이때를 놓치면 그 다음 날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바로 평소부터 안면이 있던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당시 이만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coming out 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러기에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의 이런 행동을 '당돌히'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와 함께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과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안장하였습니다. 이 무덤은 아주 비싼 무덤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 쓰려고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마가는 이 상황을 간략하게 기록한데 반해 요한은 좀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19:38)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요 19:39)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요 19:40)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싼지라

(요 19:41)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님을 장례지내기 위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21.8Kg)나 가져온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고 부자였으며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한 밤중에 진리를 알고자 예수님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법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고 아직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생전에 말한대로 부활했다고 하려고 시신을 훔쳐 갈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 무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빌라도로부터 허락을 받아내 무덤 입구에 큰 돌을 놓고 인봉까지 해서 무덤을 막고 그것도 모자라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오히려 후에 거꾸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확실한 물증들이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 날 새벽이 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 세 여인들은 미리 사서 준비해 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시신에 바를 작정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막 16:1)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막 16:2)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막 16:3)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 다니며 물심 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여인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 즉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이며 살로메는 세베데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자매지간입니다.

이 세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은 이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러간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였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을 장사했다고 하지만 때가 안식일 바로 직전인지라 시간에 쫓겨 예수님의 시신에 제대로 향유를 바르지 못하고 서둘러 무덤에 안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들은 가면서 무덤 앞에 놓여 있는 큰 돌을 누가 굴러 줄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입구에 세워 놓았던 큰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무덤 안 오른편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고 그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막 16:4)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막 16:5)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막 16:6)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덤 안에는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 한 청년은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부활이 영혼 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막 16:7)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막 16:8)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생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생전부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막 14:2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3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그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막 14:28)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상심해 있던 제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의 첫 만남의 장소를 갈릴리로 택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으로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제자들은 거기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너희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큰 꿈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고향 갈릴리를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이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품었던 그 꿈이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두려움과 절망과 수치로 숨어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말씀대로 부활한 모습을 보여 주어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여 주고 싶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다시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Christianity 에 대한 확신을 불러 넣어 주길 원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실패자가 되어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먼저 가 계신다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더 이상 실패자가 되어 고향을 찾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 후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 16:9)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참으로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애제자 요한, 야고보 등등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다 제끼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일곱 귀신에 의해 휘둘러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어둠 속에서 저주받은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받고 새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바꾸어 준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후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 다니며 수발을 들면서 물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났을지라도 그녀는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상황하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그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활 후 처음으로 그녀에게 나타나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아담 이래 최대 사건인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샘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 소망없이 마귀에게 휘둘러 살던 자들입니다.

악한 마귀 귀신들은 우리를 때로는 물구덩이에 빠뜨리고 때로는 불구덩이에 던져 곤경에 처하게 하고 어둠 속을 헤매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 오셔서 마귀의 손 아귀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어둠을 깨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빛진 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평생 주님의 길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 다녔듯이 우리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죽는 날까지 주님 길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십시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